

테마칼럼

경제로 세상보기

예술로의 초대

광고홍보 이야기

영문·영과 세상

작은 연못에서 희망을 품는 '코이'



정금희

“ 위기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꿈과 희망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이 허상에 그치지 않도록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극복하며 미래를 도모해내야...”

일본에 '코이'라 불리는 관상어가 있다고 한다. 코이는 어디에서 서식하느냐에 따라 아주 작고 귀여운 고기에서 커다란 고기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한 것으로 유명한 어종이다. 작은 어항에선 5~8cm, 수족관이나 연못에선 15~25cm, 넉따란 강물에선 90~120cm까지 자란다고 한다. 코이는 이렇듯 수 쉬고 활동하는 공간의 크기와 환경에 따라 크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축년 새해에 전망해 보는 2009년은 그리 환하지 않다. 비좁은 공간에서 어렵사리 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땐 몸피를 줄여 생존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슬데없이 몸피를 늘릴 필요가 없다. 몸피를 잘못 늘렸다면 강물에서 살아야 할 코이가 작은 어항에 들어앉은 꼴이 돼 조만간 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화려함과 찬란함을 뽐낼 때가 아니다. 최대한의 검약을 실천하면서 성실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전략일 뿐이다. 찬란한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120cm까지 자랄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닌 코이가 현재 작은 어항에 있다고 해서 계속 작은 어항에 눌러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길 포부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강물로 나아가도 5~8cm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류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과정을 놓고 인류학자들 사이엔 공감하는 학설이 있다. 여기에 간략히 소개해 보겠다. 옛날 옛날에 아프리카에 원숭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 지각변동이 있었다. 그 지각변동으로 인해 동아프리카가 하늘로 높이 치솟았다. 동아프리카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기온이 푹 떨어졌다. 예전에 평화롭게 살던 동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원숭이가 죽어갔다. 반면에 지각변동이 없었던 서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서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은 원숭이로 남았지만 생존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던 동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은 더 이상 원숭이가 아니었다. 인간으로 거듭 태어났다. 극악한 고통을 견디어내는 과정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누구나 공감하는 어려운 시절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잘 견디어내면, 원숭이가 인류로 진화했듯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중요한 점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거꾸로 죽어나가는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고통을 보란 듯이 극복하고 미래의 주인공

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작은 어항 속에서 눈에 간신히 보이는 코이로 살아갈지라도 강물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커다란 크기의 코이가 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 커다란 코이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버려선 안 된다. 꿈이 있는 집단과 꿈이 없는 집단의 성취도를 조사해본 결과 꿈이 있는 집단의 성취도가 그렇지 못한 집단의 것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어야 할 이 유다. 단순히 경제적 상황만 악화돼 있는 것이 아니다. 총체적으로 위기다. 국회는 국민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엔 너무나 수준이 낮고 공무원 역시 자신의 이권에만 혈안이 돼 있다. 또 국민 역시 이기주의에 깊이 경도돼 있다. 그렇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위기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꿈과 희망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이 허상에 그치지 않도록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극복하며 미래를 도모해내야 한다. 사실 우리 국민은 늘 위기에서 강한 에너지를 뽐내곤 했다. 그것이 수많은 외전 속에서도 5천년 역사가 이어오게 한 근본적인 힘이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를 꿈과 희망으로 견디어 미래 세계 강국으로 내쳐 나가야 할 바라본다.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홍숙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하며 어떤 분이 나에게 하소연한다. 상대가 한 그 말에 너무나 상처가 된다고... 함께 있었던 내가 볼 때는 상대가 말한 본 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좋은 삶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은혜와 사랑을 주고 받으며 따뜻한 관계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서로 할기고 괴롭히며 갈등의 관계로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 받으리라고 한 말도 그냥 흔연히 넘기는

부처님 앞에서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부처님께서 설한 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아난존자는 금강경의 첫구절을 이렇게 시작하였다. 여시아문(如是我聞)(Thus have I heard) 내가 이와 같이 듣사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도 결국 내 생각으로, 내 근거(根據)만큼 들을 수 있기에 그렇게 지혜롭게 표현한 것을 보면서 뭔가 가슴에 진한 여운이 남았던 일이 있어 이 구절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같은 한국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와같이 듣사오니

사람도 있다. 왜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까? 가끔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통역이 필요할 때도 있다. “아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통역을 하거나 옆에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서서 그 싸움을 중재하느라고 통역하는 경우도 있다. 서로 정말 시작차가 커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은 요점인데도 다르게 받아들여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 또 마음은 그것이 아니데 말로 본의와는 상관없이 과장하거나 생략하거나 해서 말하는 경우 오해와 섭섭함을 낳아 본의 아니게 싸우는 경우도 많다. “여시아문(如是我聞)(Thus have I heard) 내가 이와같이 듣사오니”

‘아’라고 했지만 듣는 사람은 ‘어’라고 들을 수 있다.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기보다는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 고정관념으로 들을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I 메시지로 말하는 기법’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느냐(You 메시지)보다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니 내 기분이 안좋네요’(I 메시지)표현만 조금 바뀐 이 기법도 금강경의 첫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보인다. 시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 상대방의 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기축년의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도 사람사이 관계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조금이라도 풀려는 노력은 나와 상대의 시각차를 인정하고 나의 시각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원불교 비아교당 보좌교무>

노숙자들 의식주 지원보다 자활의지 키울 정책 필요

요즘 노숙자분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마련되고 이분들을 위한 끼니나 숙소 같은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분들이 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일은 없다. 그런데 최근에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지인으로부터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노숙자분들이 노숙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 좀 지나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자들을 위한 소위 지나친 배려가 노숙자를 더 늘리고 있는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보자. 시내 주변에는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곳이 많다. 맘만 먹으면 하루에

4~5끼까지 먹을 수 있는 무료 급식이나 배급소가 있다. 거기다가 회화를 들면서 예배를 보고 교회에서 주는 ‘구제금’이라는 것을 받아 챙기면 하루 용돈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돈이 떨어지면 센터나 시설로 들어가면 된다. 이들은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일할 능력이 있어도 안하는 경우도 많다. 노숙자 지원에 의식주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고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기관과 지역마다 중복되고 약간 낭비적으로 의식주 지원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이들의 자활의지를 키워 주는 지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노숙자 정책이 필요하다. <정영환·광주시 동구 총장로>

기고

고재권



국제 사료값 상승이 지난 가을 들판을 바꾸어 놓았다. 예전에 논은 모듬은 가을걷이 후 이듬해 좋은 쌀 생산을 위해 논바닥에 널어둔 볍짐으로 가득했으나 지난 가을 논바닥 흰색 필름에 콩콩 싸맨 원통 모양의 볍짐 덩어리가 10~20개씩 줄지어 놓여 있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었다. 축산농가들의 볍짐조사로 확보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생 볍짐 콘포 사일리지 생산도 크게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급하다고 본다. 지속적인 볍짐수거는 토양중 유기물과 규산함량을 낮게 하고 토양 물리성도 악화되어 토양 척박으로 인한 벼 수량감소 및 병충해 발생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농가에서는 볍짐을 300평당 2만5천~3만원에 팔고 있으나 볍짐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 가격을 환산하면 8만원 정도이며 볍짐이 당장의 이익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땅심을 하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볍짐 속

볍짐으로 땅심을 살려라

볍짐수거는 생볍짐 원형콘포 사일리지 개발과 관련한 기계화작업, 소 사육두수 증가 및 수입조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대체 조사료 수요증가로 볍짐 수거 이용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볍짐은 조사료 국내 총생산의 59%(2천128천t)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볍짐 총생산량(5천597천t)의 38%를 조사료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볍짐 수거는 볍짐 부속 지연으로 인한 작업불편, 질단 살포후 물을 넣으면 볍짐 부속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리작재배를 위한 정보리 또는 밀 파종시에는 파종작업이 편하고 벼 임도확보에 유리하다고 한다. 그리고 볍짐 소각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도 제고에 볍짐의 수거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볍짐수거는 임대농업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비옥도 관리보다는 판매이윤을 추구하여 볍짐 수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며, 급우 조사료이용 증대에 따른 논토양 지력유지 방안이

에 들어 있는 비료성분은 질소 3.5, 인산 4.8, 칼리 17.0, 규산 52.5, 유기물 145(kg/500kg)등 다양한 성분을 공급하고 있다. 논에 투입된 볍짐은 투입 2개월 후에 반이 부속되고, 2년 후에 90% 분해되고 벼가 성장하는데 유익한 자양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볍짐을 장기 연용시에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유효규산의 함량이 증가하며, 땅심도 증가하여 쌀 수량도 증가하고 완전미 비율도 증대된다는 보고가 있다. 유기물은 땅심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물질로 벼를 수확하고 남은 볍짐은 논으로 꼭 되돌려 주어야 하고, 농가에서도 볍짐을 손쉽게 유기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볍짐 시용에 따른 경운시기, 부속축진 방안, 임도향상 등을 조기에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볍짐 수거에는 대한 유기질 시용 확대 및 적정 규산함량(130ppm)을 유지시켜야 하며, 지력유지 방안으로는 가축분 퇴비, 액비의 확대 활용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가축분 퇴비 및 액비 시용 시 시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 벼육종재배과장>

겉만 부풀려진 과자봉지 소비자 우롱하는 처사

지금 집에서 쓰는 조그만 휴지부터 시작해 대형 전자제품까지 값이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요즘은 그래서 시장 가서 쇼핑하기도 겁나고 아이들 과자 한 봉지 사줄 때도 한참 망설이기 일쑤다. 그런데 얼마전 정말 아이들 과자를 사주다가 쓴웃음이 나왔다. 달라화가 치솟고, 기름값이 올라 수입대금도 상승했으므로 과자를 만드는 밀가루 값도 연동해서 크게 오르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과자봉지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기분은 영 아니다. 즉 과자 봉지가 아주 ‘뽕뽕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기대를 걸고 과자 봉지를 열면, 내용물은 실상 반도 채워져 있지 않다. 설사 제품보호를 위해서라고 해도 내용물을 반도 채우지 않는 것은 소비를 현혹하는 알락한 사술일 뿐이다. <전영희·광주시 동구 총장로>

시설

지역 현안사업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형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걱정이 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J프로젝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정부의 지원부족과 무관심, 지자체의 전략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완공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호남의 사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매듭지어야 한다. 2012년 조기완공 약속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J프로젝트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간척지 양도 불가 입장에 부딪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J프로젝트는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전략사업이다. 따라서 간척지 양도는 J프로젝트를 하찮은 지역 숙원사업 정도로 치부하는 농식품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기타 현안 역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21세기는 속도경쟁의 시대다. 속도에서 뒤진다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대형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국가경쟁도 살아난다.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균형있는 국가발전과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역 정치권, 지자체, 지역민도 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중소형 조선산업 획일적인 구조조정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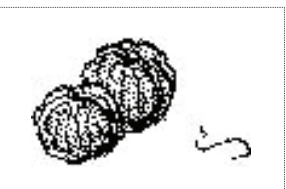
최근 채권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조선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획일적인 금융논리보다는 지역경제 기여도 등 미래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설비축소와 인력감축 위주로 진행될 경우 조선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전남지역 조선업 동향 및 과제’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현재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전남지역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영난이 경쟁력 저하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입 단계에서 신용경색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에 따른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1980~90년대 설비,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

정으로 침몰한 일본 조선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진단에서 나왔다. 실제로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해온 일본 조선업계는 1979년과 1987년 두 차례 조선 수요위축에 대비할 목적으로 각각 35%와 20%의 공급능력 감축을 단행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경기 호황으로 선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본 조선업계는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설비 확장을 시도한 한국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번 한국은행의 진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쟁에도 엄청난 파급을 미치는 산업이다. 특히 전남 조선업은 지리적, 산업적 여건상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산업인 만큼 ‘큰 틀에서’ 육석(玉石)을 가려내야 한다. 퇴출만이 대안은 아니다.

無等鼓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속설에 ‘호두를 매일 먹으면 40대는 10년, 50대는 5년 오래 산다’고 했다. ‘심장 건강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호두는 예부터 노화를 막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영양식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영양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G 플랫폼 박사는 호두를 콩, 시금치, 호박, 브로콜리, 연어 등과 함께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Super Food)’로 명명한 바 있다. 특히 호두가 심장 건강에 좋은 것은 견과류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산 덕분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세포 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고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게 돕는 것이다. 또 혈류를 방해할 수 있는 혈관의 염증을 예방한다.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가 좋다. 호두가 전문적인 고지혈증 치료제만큼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호두의 불포화지방산 가운데 리놀산과 리놀레산은 필수지방산으로 일명 비타민 F라 부른다. 리놀산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다. 아미리톨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해로운 수 있다. 호두는 지방질이 많은 고열량 식품이어서 비만을 부르기도 한다. 호두 1개는 45Cal의 열량을 포함하고 있다. 7알을 먹으면 밥 한 공기(300 Cal)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장병 예방을 위해 매일 약 1.5온스(42g)의 호두를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42g은 한 줌 정도의 양이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40, 50대가 가장 고위험군이다. 중년들이여!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줌 씩 호두를 먹자. <김일환 여문대재부장 kih8@>



호두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s.